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 - '간타위소(諫打圍疏)'를 중심으로 -

염 은 열*

1. 머리말

<간타위소>¹⁾는 <東文選>에 수록된, 선초 상소문²⁾ 중의 하나이다. 왕에게 왕이 좋아하는 '사냥을 금해 줄 것 (즉, 타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상소문은 신하인 발신자가 왕인 수신자를 상대로 쓴 서간의 일종으로, 독자가 특정된 이상 그에 대한 위치 관계에 의해서 적절한 예법의 고려가 필요하니, 단지 뜻만 통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³⁾. 절대자인 수신자

* 인천 교대 강사

1) <속통문선>, 제 11권 pp. 73-76., CD <국역 조선왕조 실록 2> 연산 035, 연산5년 9월 16일(이후 <국역조선왕조실록>의 날짜는 05/09/16 식으로 표시함) 참고. <조선왕조 실록>에는 홍기달의 상소문 전문과 함께, 상소문에 대한 연산군의 반응과 史家들의 평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2) 유희은 그의 <文心雕龍>에서 천자를 발신자로 하는 언어 형식을 넷으로 나누고 있다. 장(章)과 표(表)와 주계(奏啓)와 의대(義對)가 바로 그것인데, 이 넷을 서로 구분되는 형식으로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간의 관계 설정은 모호하다. 口語에 의한 보고인 장과 표를 제외하면 문서로 된 형식인, 주계와 의대가 남는다. 주계는 의대와 구별되되 동시에 의대를 넘어서는 상위의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글은 그러한 광의의 주계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상소' 혹은 '소'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의'와 '대'는 '간'과 함께 주계의 하위 양식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동문선의 체제를 따른 것으로 동문선 역시 '소'라는 상위 개념 아래 '의'와 '대'를 '간' 등등을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희, 『文心雕龍』(최동호 역편, 민음사, 1996), pp. 280-306.

3) 김일근(1984), 증보 언간의 연구(건국대출판부), p. 11.

를 상대로 하는 글인 만큼, 고도의 표현 전략이 요구되는 글쓰기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간타위소>는 소 중에서도 '諫'하는 소이다. '간'을 字典에서 찾아보면, '① 임금 또는 웃어른에게 충고함(諷諫), ② 자기의 前非를 뉘우쳐 닦함, ③ 간하는 말'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소문과 관련된 의미는 ①과 ③이 될 것이다. ①과 ③에 따르면 '임금 또는 윗사람에게 충고하는 행위 혹은 충고하는 말(글)'이 곧 '간'일 터인데, '충고'라는 점에서 '간하는 소'는 임금과 국사를 상의하는 형식인 '義'나 임금의 물음에 신하가 답하는 형식인 '對'⁴⁾와 구분된다 하겠다. '충고'는 잘못을 했거나 어떤 일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하지 않을 때 행하는 조언이다. 설득적 발화의 의도가 인지적 변화와 태도적 변화, 그리고 행동적 변화⁵⁾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보면, 충고는 수신자가 자신의 잘못 내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게 하려는 의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설득의 전차원에 관련된 지극히 설득적인 발화 행위라 할 수 있다⁶⁾. 따라서 <간하는 소>는 세 차원의 변화가 모두 요구된다는 점에서 설득성이 강한 글이라 할 수 있고, 임금을 수신자로 한다는 점에서 예법 상의 고려 이상의 어려움⁷⁾이 있으며, 그러한 양식상의 특성과

4) 유협, 위의 책, pp. 290-306.

5) 호프랜드의 실험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인지 차원에서는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태도 차원, 그리고 행동차원으로 올라갈수록 효과가 적어진다고 한다. (김정탁 저, 설득의 광고학, 나남신서 169, 나남, 1990, pp. 110-112.) 그런데 '간타위소'는 비롯한 간하는 소의 경우는 궁극적인 설득 효과를 행동적 차원에 둔다는 점에서 설득적 표현으로서의 정교함과 탁월함이 요구되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 행동적 차원의 변화는 앞의 두 차원의 변화를 전제한 것일 경우가 많고, 설득 효과가 나타나기 가장 어려운 차원이기 때문이다.

6) 연산군에게 사냥을 금하고 국사에 전념하기를 '충고'하는 <간타위소>는, 제도나 차례 절차에 대하여 임금과 의문하고 임금의 물음에 답하는 <봉문선> 소재의 다른 소들과는 달리 연산군을 설득하려는 명백한 설득 의도를 지닌다. 또 수신자인 연산군이 잘못을 인지하고 흥귀달 자신이 조언하는 바에 따라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임금에게 인지적 차원과 태도적 차원, 행동적 차원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

7) 상소문의 관습화된 표현 상의 특징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

상황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설득을 위한 모든 요소가 아낌없이 그리고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으로 구사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⁸⁾.

여기서는 이상의 특성으로 인해 '간하는 소'가 설득적 표현의 훌륭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아래, 우선 <동문선>에 수록된, 홍귀달의 <간타위소>를 살펴보았다. 홍귀달은 사문을 다스리고 대간하는 일을 소임으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그 당대에 인정받은 사람⁹⁾이다. 계속되는 '타위'와 관련된 상소에도 묵묵부답이던 연산군이 홍귀달의 상소문을 읽고 그 말이 옳음을 인정하는 발언¹⁰⁾을 한 것만 보아도 <간타위소>의 설득성을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간타위소>만으로 '간하는 상소

난다. 서두의 '엿드려 생각하옵기는' 식의 상투적인 표현과, 말미의 결연한 비장감 역시도 이러한 소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 8) 김대행, 古典表現論을 위하여, 선정어문 제20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2, p. 15.
- 9) 홍귀달은 세조 조에 급제하여, 성종 때 20여년 동안 대간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연산군 때에도 대제학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덕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에 능했다는 것이 일관된 평임을 알 수 있다. 왕조실록에 나타난 홍귀달에 대한 평은 다음과 같다.

"직절은 낮지만 문형을 밋길 받다...홍귀달을 제수 하였는데, 홍귀달은 짧어서부터 저술에 마음을 두어 시문에 능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잘되었다 하였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정렴하지 못하였으니, 재주는 넉넉하나 덕이 모자라는 자이다 하였다." 성종 263 성종 23년 3월 19일

"홍귀달은 斯文을 다스림을 맡아서 자못 명망이 있었는데, 판서가 됨에 미처서는 주의가 공정하지 못하여.." 성종 281 24/08/19

"왕이 처음 정사할 때에, 홍귀달을 사랑하여 정승을 삼으려고까지 하였는데, 홍귀달이 마음을 다하여 匡求하여 임이 있을 때마다 문득 말하고, 경연에 모시어서는 언제나 治道의 득실을 논란하니,.....홍귀달이 답하기를, '포의 몸으로 지위가 이미 극에 달하였으며, 다시 무엇을 바리겠느냐. 오직 부지런히 힘쓰고 나의 마음을 다할 뿐이다.' 하였다." 연산 035 05/09/16

"성품이 관후하고 문장으로써 자기 책임을 삼아 경연에 참가할 때는 반드시 반복해서 옛일을 인용하여 지극을 불간하니, 왕도 또한 여러 번 착함을 칭찬하였다. 사람이 비록 정렴과 검소함에는 부끄러운 점이 있으나 그 기우(氣宇)가 존경할 만한데, 사소한 일로써 과면을 당하니 당시의 여론이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 연산 038 06/06/29 (벌출-필자)

- 10) CD-ROM 『국역 왕조실록』 연산 053 05/09/16 참고. 의정부(09/02), 대간(09/06), 홍문관 부제학 최진(09/23), 대사간 이균(09/26, 10/13) 등도 강무를 줄이고 국사에 힘쓰기를 간한 바 있으나, 연산군이 이 소들을 전부 무시한 바도 있다.

문'의 설득 방법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간타위소>를 구체적 논의의 출발로 삼아, <동문선> 소재 다른 글들로 논의를 확대하여 일반화를 꾀하였다. 이는 '제가의 작품을 가려 모으되', '글과 이치가 순정하여 교화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취'하였다는 <동문선> 편찬 취지¹¹⁾를 존중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삶의 조건들이 설득적 표현에 관여하는 방식을 살펴보려는 이 글의 의도 때문이다.

삶의 조건들이 효과적인 설득 표현에 관여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상소문 양식의 역사성 내지 특수성, 당대성 등을 해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역시 보편적 인간이되 우리가 터한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이러한 논의는 설득적 표현의 총체적인 전략 즉, 규범성과 창조성을 아우르는 설득적 표현의 전면¹²⁾을 보여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는 또한 표현에 관여하는 문화 원리와 사용 원리 양면¹³⁾이 작용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설득적 표현의 이론을 구조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2. <간타위소>의 표현 양상

1) 논지 전개 방식 : 구체화

홍귀달은 자신이 장계하는 것임을 서두에서 미리 밝힌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열어 보이려(章, 啓)는지는 선뜻 드러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무슨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주장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상황하게 늘어놓는다. 되놈들의 횡포가 심상치 않음을 말한 후, 그 구체

11)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 동문선 1』 (민문고, 1989 중판), p. 21.

12) 모든 표현은 보편성과 특수성, 규범성과 일탈성 등이 織造된 결과라는 것이 이 글의 일관된 입장이다.

13) 이용주 외, <국어교육학 연구와 교육의 구조> (사대논총 46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93), pp. 10-29.

적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고 그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말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쓸데없고 급하지 않은 행위’를 금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함으로써 ‘타위’해야 할 시기임을 비춘다. 이어, 왕의 사냥이 중요한 국사의 하나임을 주장하는 논거들에 대한 반론¹⁴⁾을 펴고, 타위를 비롯한 왕이 취해야 할 행동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간타위소>의 전체적인 흐름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 보았다.

- ① 흥귀달이 상소함을 고함
- ② 되놈들의 국경침입과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반복해서 언급
- ③ 근신해야 할 시기임을 역설
- ④ 타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한 반박
- ⑤ 임금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며, 타위를 역설
- ⑥ 죽음을 무릅쓴 각오를 밝히고 처분을 기다림을 고함

전언을 드러내는 방식, 즉 전체적인 논지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되놈의 횡포를 말하는 서두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전언이 글의 후반부로 가면서 점차로 드러나는 형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지 전개 방식을 구체화 내지 초점화의 방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되놈의 횡포가 있음을 막연히 말하다가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되놈들의 횡포를 강도 높게 초점화하여 보여준다. 타위하라는 전언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구체화 내지 초점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좋지 못한 일이 있다 → 근신해야 할 때이다 → 쓸데없는 행위와 급하지 않은 거사를 금해야 한다(주장을 내비침) → 사냥은 급하지 않

14) 사냥이 군사 훈련과 종묘 제사에 소용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사를 강론하지 않고 짐승 잡기에 급급한 사냥이 군사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죽어가는 선왕의 자식들을 살려내는 것이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라는 점을 역설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미리 일축해 버린다.

을 때나 하는 것이다 → 타위해라'(확실하게 주장을 제시)의 순서로, 논의의 폭을 좁혀 말하고자 하는 바로 나아간다. 그 결과 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냥하는 것을 금하라'는 주장이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전언 제시 방식은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 조작 방식으로 보면 전언이 후반부로 갈수록 초점화/구체화되어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클라이맥스형¹⁵⁾이라 할 만하다. 선후 개념을 도입하면, 선논거 후결론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 제시 방식은 수용자들이 그 메시지의 내용이나 주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을 경우¹⁶⁾나, 수용자가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거나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할 때, 효과적인 설득 방법이 될 수 있다¹⁷⁾. 결론이 제시되는 후반부까지 수신자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첨가될 때마다 수신자 스스로가 결론을 구성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소문은 수신자인 왕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결론을 미리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구조화하는 방식보다는, 선논거 후결론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상소문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왕의 관심을 끌어야 했을 것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보다는 우회적인 방법 내지 완곡한 내용 전개가 효과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간타위소>의 전체적인 논지 전개는 왕이라는 수신자의 특성으로 인해 구체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전략들을 살펴보자.

2) 전제의 활용

<간타위소>를 읽어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의문문의 형식이

15) 차배근, 『설득커뮤니케이션이론』(서울대출판부, 1989), pp. 306-401.

16) 위의 책, pp. 306-401.

17) 김정탁, 앞의 책, p. 123.

자주 사용¹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문문은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에 비해 공손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손성이 수신자의 자유로운 답변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의문문의 형식 자체가 응답 형식을 미리 규정¹⁹⁾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예법상의 공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을 된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의문문은 거의 전제²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의도하는 내용을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철수가 과자를 먹었니?’라는 의문문의 형식은 최소한 ‘누군가가 과자를 먹었다’는 얇이 전제되기 마련인 것이다. <간타위소> 역시 이러한 화용론적 이점을 활용하여, 전제를 적극 활용한 의문문 형식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 그 중 몇 개의 문장을 뽑아 전제가 발신자의 표현 의도를 구체화하는 방식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마치 사람 없는 지경에 들어가 양떼를 몰아서 쫓아 버리듯이 하였으니, 한 쪽이 전부 비게 되었습니다. ① 어찌 당당한 성조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18)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은 의문문은 다음과 같다. 이 의문문들 역시 의문문으로 전제를 활용하여 인지 내용을 한정한다는 점은, 분석의 대상이 된 두 문장과 다르지 않다.

- ‘애통하여 겨를이 없을 터이온데, 어찌 차마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명색은 비록 무사를 강론한다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짐승을 잡기 위한 것이니, 무엇이 완급을 가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선왕 선후께서 어찌 제사를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조정 상하가 마땅히 눈물을 흘려 통곡하여 덕과 정사를 닦을 때라고 여기는데, 어느 겨를에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서리와 이슬을 범하시니, 만에 하나라도 감촉되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 19) 상소문에 사용된 수사문의문문은 대부분 이러한 응답 형식이 규정되는 특징을 이용한 것이기 쉽다. 정순자, 「전제의 의사 소통적 기능 연구」(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3.), p. 57.
 20) 전제는 한 문장에서 미리 참인 것으로 인정되거나 한 반화가 적절하기 위한 선조건 혹은 화자와 청자의 공유 지식을 말한다. 위의 논문, p. 26 참고.

2) 그러하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군신과 상하가 서로 경계하여 덕을 닦아 정사를 행하되 재앙을 막고, 근심을 없애는 것을 급무로 삼아야 하겠사옵니다. ② 어찌 꼭 예사에 국한되어 구차스레 이러한 급하지 않은 거사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①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의문문 중에서도 수사의문문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에도 하나 이상의 전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당한 성조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수사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지만, 이 문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전제와 '이 성조는 당당하다'라는 전제가 사용되었다. 여기서의 어떤 일이란 논지의 흐름으로 보아 산양회 사건²¹⁾으로 대표되는 '되놈의 횡포'를 의미한다. 이후 근신해야 할 시기임을 역설하고 타위할 것을 권하는 전체 흐름으로 보아, 성조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되놈의 횡포'를 왕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목적으로 조직된 문장임을 추리해 볼 수 있다. 왕이 자신의 문제로 인지하게 하기 위해 '당당한 성조'임을 전제화하고 그 성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전제화하여 이 둘을 연결지음으로써 '당당한 임금'이 있는 이 성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인지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근신할 시기임을 언급하기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음'을 인지시키려 한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이 글의 도입 부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수신자인 임금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만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임금인 수신자가 근신해야 한다고 말할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에게 뭔가 일어났음을 인지시키는 절차로, 또한 그러한 설득적 목적을 위해서, 전제

21) 산양회 사건은 연산 5년 9월 초4일 산양회 친라울(山羊會親羅兀) 백영명이 되놈들에게 잡혀가고, 양세영과 이지방이 죽고, 김득광 등 9인과 말 12필이 잡혀간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연산군 때 변방에서 일어난 되놈들의 횡포 중에서는 그 피해의 규모로 볼 때 최고의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이후 변방을 수비하는 문제가 국방 문제의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되기에 이르는데, <간타위소>는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임금의 근신을 간하는 소라 할 수 있다.

가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제'는 인지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인지 내용을 한정함으로써 그 인지 내용을 인정하게 만드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①은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생각할 수 있다' 혹은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듯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신자가 '어떤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②와 같은 의문문의 형식도 동일하게 분석될 수 있다. '예사에 국한되어 급하지 않은 거사를 헤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완곡하게 표현한 수사의 문문으로, 이 의문문 역시 '사냥은 거사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거사는 급하지 않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이러한 전제는 임금이 '사냥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언급하기에 앞서 사냥하는 일을 급하지 않은 일로 인지하게 만든다. '급하지 않은'이라는 가치 평가적 언급을 통해 거사의 성격을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게끔 전제화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는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었을 때보다 한층 설득력을 갖는다. 대화자는 자신이 '그렇다'나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다는 느낌을 가지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지만, 실제로는 '그렇다'나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사실 자체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본적인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제가 갖는 이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의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²²⁾. <간타위소> 역시 수신자인 왕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근본적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즉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인지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전제화라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3) 권위적 논거의 활용

전제의 사용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권위적 논거의 활용이다. 권위적 논거가 사용된 다음 문장들을 살펴 보자.

22) 올리비에 르블, 『언어와 이데올로기』 (홍재성·권오룡 옮김, 역사바평사, 1994), p. 73.

- 3) 이러한 재앙이 생기는 것은 하늘이 임금을 경계하여, 그로 하여금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심각하게 하여, 능하지 못한 점을 더욱 유익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 4) 신의 생각에는 요새 살륙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입은 자는 모두 선왕(先王), 선후(先后)의 적자(赤子)입니다. 적자가 그 무리와 함께 도적에게 죽고, 사로잡히고 하였는데, 그것을 구원할 생각은 아니하고 사냥을 해서 효성을 받치려고 하면, 선왕, 선후께서 어찌 제사를 편안히 받으시겠습니까.
- 5) 옛날 한 문제(文帝)는 문체를 지친 태평 시대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당하여 오랑캐 놈들이 감히 관문을 들어서지 못하였으니, 천하는 치안이 잘되었다고 할 만 하운데 가의(賈誼)는 오히려 세상을 근심하고 눈물을 흘려 통곡하였으니, 기의로 하여금 요새 세상에 나서 어떻게 마음을 가질런지 알 수 없사옵니다.

3)은 재앙의 의미에 대한 해석 부분이다. 재앙이 경계의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 권위를 더하기 위해 ‘하늘’이 경계하는 것임을 언급한다. 공자의 “獲罪於天，無所禱也”라는 말이나 “天厭之，天厭之”라는 탄식은 유교적 규범 세계 안에서 하늘의 의미에 대해 잘 보여준다. 금장태²³⁾는 유교가 현세적 도덕 규범이라는 통속적 이해를 넘어서, ‘천天’ 혹은 ‘상제上帝’로 일컬어지는 궁극적 존재에 대해 확고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신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데, 유교사상 속에서 천-상제는 결코 하나의 추상적 관념으로 머물 수 없으며, 인간의 구체적 삶과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으로, 유교에서는 푸른 하늘(蒼蒼有形之天)과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령한 주재자로서의 하늘(靈明主宰之天)’을 구별한다. 이 영명하고 주재하는 하늘에 대해 인간은 우리러 존중하므로 경천(敬天)-외천(畏天)-봉천(奉天)-사천(事天)-배천(配天)-제천(祭天) 등의 태도와 행동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끊임없는 생성의 능력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23)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진통문화연구회, 1995), pp. 97-106.

존재하게 하는 근거로서 조화 작용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늘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명령하고 당위적 기준을 제시하는 주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주재 작용은 천명을 통하여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늘은 명령하고 인간은 하늘의 명령을 깨달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늘이 주재하는 유교적 기본 질서가 확립된다. 따라서 하늘은 모든 유교적 질서의 근원이 되며, 이러한 '하늘'의 권위를 끌어들이는 것은 임금을 수신자로 상정한 신하가 자신의 말의 권위를 마련하는 일이라 하겠다.

4)는 산양회 사건으로 대표되는 되놈들의 살육에 의해 희생당한 백성들을 돌봐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임금의 적자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하지 않고 '선왕', '선후'의 적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할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선왕, 선후를 끌어들이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때의 선왕, 선후도 권위적 논거를 활용한 경우라 하겠다. 선왕과 선후는 전대의 왕과 왕후라는 의미 외에도 자신의 부모라는 권위를 갖는다. 유교적인 가족 관계의 기본 구조의 특징은 부모와 자녀의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 도덕규범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로 지적²⁴⁾되기 때문이다. 5) 역시 권위적 논거 사용의 또다른 규범을 보여준다. 한 문제의 일화가 하나의 논거로서 제시되는데, 한 문제의 사적 역시 중국 중심의 사유체계 안에서는 절대적인 논거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할 수 있다.

'하늘', '선왕/선후', '한 문제'가 유권해석을 위해 끌어들이졌음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끌어들이진 것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권위적 논거 제시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유교적 세계관 내지 중국 중심의 중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권위가 그것이 통용되는 언어 공동체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바, 당시의 역사적 조건 안에서 기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다. 그런데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회 안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24) 위의 책, p. 195.

말이다. 이러한 힘은 발신자에게는 설득적 담화를 조직하는 방식을 제공해 주고, 수신자에게는 복종의 무엇으로 작용한다. 올리비에 르블은 이러한 권위적 논거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권위적 논거의 활용이 종교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스탈린 치하에서는 맑스, 엥겔스, 레닌의 저작들, 심지어 학문적 토론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로 제시되곤 하는 등 맹목적이고 전폭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²⁵⁾했다. 이러한 지적은 권위가 논리적 판단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믿음 혹은 복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늘', '선왕/선후', '한 문제' 역시 유교적 언어공동체 안에서는 복종의 대상으로서의 절대적인 자리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권위가 보편적인 가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설득적 전략으로서의 권위적 논거 활용의 성패는, 그 언어공동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거짓 인과 관계의 활용

6) 실은 ① 나라의 운수가 통태(通泰)하지 못하여 화한(禍愆)을 몰아오이 서로 맞부딪쳐, ② 변방 백성이 양화를 받은 것입니다. 대개 아내가 제 지아비를 누르고 되놈이 문명국을 어지럽게 한 것은, 모두 비상한 변괴인 바, 이러한 ③ 재앙이 생기는 것은 ④ 하늘이 임금을 경계하여, 그로 하여금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심각하게 하여, 능하지 못한 점을 더욱 유익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요새, 안으로는 천둥과 우박의 재앙이 있고, 밖으로는 되놈들의 화를 더하니, 하늘이 우리 전하를 사랑하여 경계심을 갖게 한 것이 지극하옵니다.

6)은 산양회 사건 등 재앙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이후 주장의 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①이 ②의 원인이고, ④가 ③의 원인이 된다는 해석이다. '赤子が 그 무리와 함께 죽고, 사로잡히고 하였는데, 그것을 구원할 생

25) 올리비에 르블, 앞의 책, pp. 116-117.

각을 하지 않고 사냥을 해서야 되겠느냐'이라는 표현에 주목한다면, 재앙의 해석이 타위를 거론하는 중요한 논거로써 기능함을 알 수 있다. ②, ③의 재앙이 ①, ④의 원인, 즉 하늘이 경계해서 생긴 일인만큼 그 경계의 의미를 받아들여 타위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되놈의 횡포가 임금에 근신하지 않아서 일어난 재앙이고 따라서 그러한 재앙을 더이상 지속시키지 않으려면 임금이 근신의 징표로 타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은 외관상 자못 논리적인 인과 관계에 의거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임금의 사냥'과 '재앙'은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로 묶일 수 없다. 재앙의 원인은 오히려 변방의 수비가 소홀하다든지 오랑캐의 세력이 강해졌다든지 하는 식의 여러 내외 정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질 성질의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가.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항과 결과 항의 관련이 필연적이지 않거나 단선적인 형식을, 거짓 인과 관계²⁶⁾의 형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짓 인과 관계가 갖는 설득적 의미에 대해서는 올리비에 르블의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이데올로기적 담화는 사실을 만들어 낼뿐만 아니라, 사건들 사이의 설명적 연결장치인 인과 관계까지 만들어 낸다. 대개 사람들이 찾으려는 원인은 위기, 실업, 궁핍, 전쟁 등과 같은 재앙, 원가 잘되지 않는 일의 책임의 원인이다. ..실업과 같은 재앙에는 죄인이 있기 마련이다. 우파에게 있어서 그것은 인민 노동자들이고 좌파에게 있어 그것은 대자본가이다.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잘 되어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설명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설명은 일체의 증거가 불가능한 차원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불행에 대한 설명의 필요는 진실에 대한 설명의 필요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 그러한 필요는 왜 생기는가. 그것은 고통 가운데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26) 위의 책, pp. 74-76.

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 고통을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자, 즉 고통을 받게 만들고 파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지점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필요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필요를 충족시키켜주는 척하며 그것을 교묘히 이용한다. 거짓 인과 관계는 그것이 감정적이면서 동시에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하여 막무가내이다. 어떤 논거도 유대인들이 페스트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중세인들에게 납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가²⁷⁾.

이러한 르블의 지적에 주목한다면, 타위를 논하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되놈들의 횡포와 천재지변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졌던 의문²⁸⁾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셈이다. 되놈들의 횡포와 천재지변은 임금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결국, 재앙에 대한 해석이 타위를 간하는 직접적인 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 거짓 인과 관계가 중요한 논리적 고리가 됨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되놈의 횡포나 재앙의 원인이 '왕의 근신하지 않음(곧 사냥)'에 있다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연관은 일체의 증명이 불가능한 차원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인 외장이 설명적 진술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강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페스트의 원인이라고 의심없이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이러한 거짓 인과 관계 역시 당대의 문화 속에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규정되는 것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이 페스트의 원인이라고 믿지 않으며, 재앙의 원인이 임금의 사냥에 있다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짓 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 항과 결과 항 간의 관계 역시 역사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7) 위의 책, pp. 74-76.

28) 급기야 '살아 있는 것을 죽인다'는 점으로 인해 되놈들이 백성들을 살육하는 행위와 임금이 사냥을 하는 행위가 겹치기에 이른다.

3. 조선초 상소문의 설득 전략

<간타위소>가 주로 문장 차원에서는 전제를 활용함으로써 지령적 언급을 대신하고, 권위적 논거라는 텍스트 외적 권위를 활용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락 및 내용 전개 차원에서는 인과 관계라는 논리적 형식과 구체화라는 일정한 방향성에 따라 전언이 구조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소의 양식에서 전제와 권위적 논거가 주된 전략으로 구사된 까닭은 무엇인가 물어야 할 차례다. 또 인과 관계라는 논리적 형식과 구체화의 전략이 사용된 양식적/역사적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들은 결합된 형식으로 등장하기 일쑤이며 따라서 이를 나눠서 논하는 것이 논의의 구체화와 편의를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1) 이상적인 동일시의 대상(목표)을 상정

상소문의 대부분은 주장을 내세울 때 외적 권위를 내세운다. <간폐비소>²⁹⁾에서는 ‘하늘, 예경, 순임금, 애공, 공자, 주공, 덕중, 오류’ 등이 등장하였고, <홍문관예문관합사소>³⁰⁾에도 ‘하늘, <예경>, 옛사람, 한무제, 수양제, 명황, 공자’ 등의 권위가 사용되었다. 하늘은 물론이고 상소문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경전들, 그 경전에 나오는 규범들은 모두 중세의 유교적 규범하에서는 절대적인 위상을 갖는 것들이다. 이들 대상들이 절대적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적인 인물 내지 이상적인 규범, 혹은 절대적인 선으로서의 속성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하늘 내지 천명은 절대적인 善의 성격을 띠므로써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현실 규제력을 갖는³¹⁾ 것이며, 또한 권위로 채택된 성현들은 그러한 절대 善을

29) 손순효, <간폐비소>, 『동문선 11권』(민족문화추진위원회, 민문고, 1989 중판), pp. 70-73.

30) 채수, <홍문관예문관합사소>, 위의 책, pp. 77-84.

실현한 인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그 위상으로 인해 凡人과 구별되는 이상적 인물로서의 강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³²⁾.

이러한 '이상적인 절대 선'으로서의 속성은 그 사회의 사유구조 안에서 도출된 것이겠지만, 설득의 전략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도달해야 할 목표 혹은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인지적/태도적/행동적 차원의 변화는 특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나아감을 의미하고 이러한 나아감의 잠재적인 도달점은 '선'의 속성을 갖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소문>은 천명이 요구하는 왕의 상 혹은, 옛 성현이 제시한 왕의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설득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향의 설정은 발신자에게는 내용 조직의 수월성을 보장해 주고 수신자에게는 동일시의 대상, 곧 모방의 대상을 제시해 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먼저, 발신자의 측면에서 갖는 이점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문장은 발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상 독자의 체험을 전제화한 경우이다.

7) 흠비도 조그마한 사고가 아니어서 재앙이 헛되게 발하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① 전하께서 생각을 심각히 하시고 현하의 폐단을 들어서 ② 하늘의 꾸지람을 보답하고자 하실 것이옵니다³³⁾.

②는 전제와 권위적 논거가 결합된 문장³⁴⁾이다. ②에는 '하늘이 꾸지람을 했다'는 사실이 전제화되어 있다. 이것은 신하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왕이 전제화된 사실을 무의식 중에 인지하게 만들어 준다. 동시

31) 김신희, <권력의 기표, 천(天)>, 『동양철학, 그 불멸의 문제들』(김규성 편, 이화여대출판부, 1994), pp. 53.

32) 김성희는 '천과 관류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천과 대등한 대칭적 관계에 놓이지만, 그가 다스리는 사람과는 불평등한 비대칭적 관계에 놓인다'고 함으로써 유교적 권력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위의 글, p. 54.

33) 채수, 앞의 글, p. 77.

34) 이 두 방식은 흔히 결합되는데, 전제와 권위적 논거를 활용하는 방식 모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에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고자 해야 한다’는 말은 ‘하늘’이라는 권위적 논거로 인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보답’의 구체적인 방법은 ①일 터인데, 이러한 모든 전략은 왕에게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할 줄 아는, 달리 말해 하늘이 바라는 바람직한 왕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왕이 취해야 할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군센 의지가 있어야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³⁵⁾ 상소문의 발신자가 처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준다. 발신자의 전언이 발신자 자신의 주장이 아닌, 하늘의 주장(천명)이라는 논리이며, 그 천명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왕임을 전제화함으로써 동양적 권위에 근거한 동일시의 대상을 제시하여 지령적인 언급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희³⁶⁾는 천의 주재의 주요한 적용은 대개 정치적 성패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다. 포악한 정권은 천의 주재에 의해 징벌을 받고 덕이 있는 정권 혹은 덕이 있는 사람은 천으로부터 천명을 받는다. 치자를 통해 천은 자신의 주재를 드러내며, 치자는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인간 사회 곳곳에 그 주재를 보인다. 통일적 근원인 천의 주재는 그의 대리인 왕으로부터 백성을 관통하며 그 관통의 과정에서 인간 사회의 위계가 발생하게 된다. 정치란 결국 인간 사회의 질서 및 조화를 위한 권력 행위이므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가치와 위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사유구조 안에서, 하늘이 바라는 이상적인 상이 갖는 의미는 가히 짐작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 목표 설정이 갖는 의의는 수신자에게 모방할 모델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모방할 모델의 제공은 지령적 언어로 어떤 요구를 관찰시키려 하는 것보다 우회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수사적 배려가 전제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지령적 언급이나 직접적인 주장이 아니라 모방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성을 존중하는 듯이 보이지만, 모방할 대상이 그 언어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로 군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상적 목표를

35) 유협, 앞의 책, p. 291.

36) 김선희, 앞의 책, pp. 50-51.

설정하는 것은, 예법을 존중하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발화 상황에서 전언을 조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수신자에게는 설득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모방할 모델을 제공해 주면서 이뤄지는 일이지만, 대개는 그 모방할 대상의 권위를 활용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 낸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당대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권위로 작용하는 것들을 이용하여 목표항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설득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는 피설득자의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설득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과, 거기에는 당대의 문화적/역사적 관습을 활용하는 문제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즉, 이상적인 상, 혹은 도달해야 할 목표항이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설정된 목표항은 피설득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사 논리적 추론³⁷⁾을 통한 목표에의 도달 유도

상소문은 ‘명백함과 신실(信實)함 그리고 충성심을 근본으로 하며 아울러 날카로운 분석과 일관된 논리의 유창한 구사를 가장 중요시한다’³⁸⁾. <간타위소>는 구체화의 방향으로 선논거 후결론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인과 관계라는 논리적 형식을 취함으로써 유창하게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예경의 예를 장황히 논하다가 결론적으로 서서히 전언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 <간폐위소>나, <간타위소>처럼 제앙의 해석으로 시작하는 <홍문관예문관함사소> 역시 일정한 논리적 흐름 속에서, 인과 관계를 주된 논리적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인과 관계는 모든 현상의 원인을 분석

37) 유사논리적 추론(fallacious reasoning, or pseudologic)은 비논리적 어필, 혹은 감정적 어필의 한 방식이다. 이러한 감정적 어필 방식은 감정에 호소하면서도 논리적 외장을 갖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적인 측면을 만족시켜 준다. Charles U. Larson, <Persuasion> (fifth ed., wadsworth P. C., 1989), pp. 153-154.

38) 유협, 앞의 책, p. 291.

하여 이후의 논의로 나아가는 절차를 취한다는 점에서,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형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화라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인과 관계에 의해 조직된 상소문을, 논리적인 글쓰기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논리’라는 것 또한 발화자에 의해 조직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발화자의 의도에 의해 색깔 지워지지 않을 수 없고 발화자의 가치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형식 논리만으로 구성된 글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발화자의 ‘의도’라는 감정적 가치 때문에 ‘논리’라는 것도,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많으며 다만 논리적 외장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쉽다. 상소문 역시, 원인과 결과항이 거짓 인과 관계로 이어졌으며, 따라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 논리적 논증의 차원을 넘어선, 감정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살펴 본 바 있다. 유태인이 페스트의 원인이라든가, 재앙이 하늘이 경계하여 내린 벌이라는 식의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유태인’ 혹은 ‘하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것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 안에서의 감정적 가치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감정적 가치에 의해 설정된 인과 관계가 형식상으로는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또 그러한 형식이 앞 장에서 살펴 본 이유로,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는 데 있다.

Charles³⁹⁾는 설득을 위해 논리적 외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감정적 호소의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 전개 방식을 ‘유사논리적’ 추론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추론 방식이 갖는 설득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사논리적’ 방식은 감정적 호소의 한 방식이지만 하나의 단계적 흐름을 쫓아가는 추론 방식을 의미한다. Charles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자와 연설이 이러한 감정적 호소를 사용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그러한 연설문의 예로, 안토니의 연설과 처어칠, 링컨의 연설을 분석하고 있다⁴⁰⁾. 유사논리적 추론은 감정에 호소하면서도 동시에 합리적

39) Charles U. Larson, 앞의 책, pp. 153-154.

40) 위의 책, p. 153.

설명을 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효과적인 설득 표현으로 선택된다.

이러한 사실은 疏의 양식적 특징을 짐작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논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말하기를 요구하는 '설득하기'를 반성적으로 바라보게 해 준다. 나아가 설득적 표현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문제는, 일관된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감정적인 가치를 어떻게 조직해 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4. 결 론

이상에서 <간타위소>의 설득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되놈들의 재앙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어 혼란스러우니, 임금이 근신하여 사냥을 금하고 국사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간타위소>의 내용이다. 흥귀달은 진제를 활용하여 지령적인 언급을 대신하고 외적 권위를 활용함으로써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과 관계라는 논리적 형식을 빌어 초점화의 방향으로 논지를 구조화했음을 확인했다. 물론 선초 상소문에서도 이러한 설득 방식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수신자에게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설득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나아가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되는 것은 사회/역사적 관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 설정 방법이 수신자에 대한 예법이 중시되는 발화에서 효과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상소문이 전체적으로 논리적 흐름 속에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정적인 자극을 야기시키는 기제들로 구조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설득해낼 만한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보다 설득력을 얻으려면 오히려 감정적 가치를 논리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결

국, 당대의 이상적 상을 잠재적인 도달점 즉, 이상청자의 지향점으로 상징(역사성)하여 자발성을 유도하되, 그 추론의 과정은 논리적 외장을 갖추는 것(보편성)이, 효과적인 설득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은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논리적 글쓰기를 반성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이상의 논의는 설득적 표현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출했다는 의의를 갖는 동시에, 설득적 표현의 이론을 구조화하는 작업의 시작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물론 도달해야 할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통시적으로 찾아보는 귀납적 작업과, 이러한 역사성과 함께 작용하는, 보편적 설득 전략을 치밀하게 구조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민족문화추진위원회(1989 중판), 고전국역총서 25 『국역 동문선 1권』, 민문고.
- 민족문화추진위원회(1989 중판), 고전국역총서 35 『국역 동문선 11권』, 민문고.
- 금장태(1995), 『동양문화총서7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전통문화연구회.
- 김대행(1992), <고전표현론을 위하여>, 「선청어문 2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일근(1984), 『증보 인간의 연구』, 건국대출판부.
- 올리비에 르블(1994), 『언어와 이데올로기』 (홍재성, 권오룡 옮김), 역사와비평사.
- 유협(1996), 『文心雕龍』 (최동호 역편), 민음사.
- 李圭成 編(1994), 『동양철학, 그 불멸의 문제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장덕순(1985), 『韓國隨筆文學史』, 새문사.
- 정순자(1993), <전제의 의사소통적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논문.
- 차배근(1989), 『설득커뮤니케이션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CD-ROM 『국역왕조실록 1-2』.
- Charles U. Larson(1989), Persuasion (fifth ed.), Wadsworth P. C..